

행21:27-22:23 (바울의 전도), 22:24-23:10 (큰 분란) 부분의 표준 새번역 성경을 읽는다.

사도행전 23:11~31. 때때로 주님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우리를 위한 그분의 뜻을 성취하신다.(20~25분)

반원들에게 그들이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를 원하는 반원이라고 가정해 보게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내가 좋은 성적을 얻도록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 (대답에는 부모, 교사, 가정 교사, 친구들이 포함될 수 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도록 하신 일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 반원들에게 **사도행전 23장 11~31절**을 돌아가면서 읽게 한다.

그들이 읽을 때, 다음 질문들을 토론하기 위해 잠시 멈춘다.

• 주님께서 바울이 행하도록 원하신 것은 무엇이었는가? (11절 참조) "그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 바울은 어떠한 음모 때문에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없었는가? (12~15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땅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사십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 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 바울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누가 도왔는가? (16~18, 23절 참조)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리니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 삼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이백 명과 기병 칠십 명과 창병 이백 명을 준비하라 하고 (조카와 천부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는 데 다른 사람들이 때때로 도움을 준다는 것을 반원들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여러분은 다음 질문들을 사용할 수 있다.

•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데 어떠한 도움을 주는가?

•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봉사하는 데 어떠한 도움을 주는가?

주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활용하시기 까지도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복음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간구할 때, 주님은 교사에게 속삭여서 공과 시간에 그 원리를 가르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이러한 일에 대한 경험담을 발표하도록 권유한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도록 여러분을 활용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학생들에게 주님이 언제 부르셔도 도움을 드릴 준비를 하라고 격려한다.

사도행전 24:10~21; 25:8~11; 26:2~9. 진리에 대한 간증을 지닌 사람들은 항상 기꺼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경전, 그리고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에 대해 간증해야 한다.

• 여러분이 어떤 나라의 지도자와 20분 동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반원들과 함께 **사도행전 26장 12~18절**에 나오는 바울의 "선교사 부름" 부분을 함께 읽는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은 누구에게 보내졌는가?

• 바울이 전하려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 바울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가 표현하는 그것과 어떻게 같았는가?

반원들과 함께 **사도행전 24장 10~21절, 25장 8~11절, 26장 2~9절**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답해 본다.

• 바울은 무엇을 가르쳤는가? (부활)

• 바울은 어떻게 가르쳤는가? (변론, 토론, 항소)

• 바울은 누구에게 가르쳤는가? (벨릭스 및 베스도 총독, 아그립바 왕)

• 바울은 언제 가르쳤는가?

• 복음을 가르치는 그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반원들에게 질문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하는 바울의 담대함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반원들의 대답에 대해 토론한다.

"'예수에 대한 간증이 강렬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를 위해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간증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베드로전서 3:15)고 가르쳤습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Conference Report, 1990년 10월, 38쪽. 또는 성도의 빛, 1991년 1월호, 35쪽)

반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준비하도록 격려한다.

2009년 9월 10일, 수원ST 신갈W 세미나리 교사, 구승훈 형제

바울이 체포되다 (표준새번역, 사도행전21-27-36)

그 이레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들어 놓고, 소리 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 곳을 적대해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에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 문이 곧 닫혔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곧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기를 멈추었다.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에게 쇠사슬 둘로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는 어떤 사람이며, 또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질렀다. 천부장은 소란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으므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군중의 폭행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러메고 가야 하였다.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 자를 없애 버려라!" 하고 외쳤다.

바울이 스스로 변호하다 (행21:37-22:5)

바울이 병영 안으로 끌려 들어갈 즈음에, 그는 천부장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천부장이 "당신은 그리스 말을 할 줄 아오? 그러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사천 명의 자격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오?" 하고 반문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한 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천부장이 허락하니, 바울은 층계에 서서, 무리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하였다. 잠잠해지자,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였다.

"부형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군중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서, 더욱더 조용해졌다. 바울은 말을 이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임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증언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개심 이야기 (행 9:1-19; 26:12-18)

바울을 이방 사람의 사도로 보내시다 (행22:17-23)

"그 뒤에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무아지경에 빠져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내게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를 두고 한 네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증언자인 스테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저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거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 버려라. 살려 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고향을 치며,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의 소유자임을 알리다 (행22:24-29)

그 때에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신문하라고 하였다.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에,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에 있소?" 하고 말하였다.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알렸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에게로 와서 "내게 말하십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오?" 하고 물었다.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소"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바울이 의회 앞에서 해명하다 (행22:30-23:10)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 주고, 명령을 내려서,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그대를 치실 것이오. 그대가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당신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바울이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하였소."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일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일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소리로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회중이 나뉘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도 잘못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내려가서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군인에게 명령하였다.